

소금을 긁어 모으는 염전 대파질

예술적 영감 든든히 채워 ‘소금빛 가을’로 떠나요!

정지효 여행작가의 남도투어 Happy-Bus-Day

〈20〉남도한바퀴 광주-신안 여행



가을색으로 붉게 물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을 손톱으로 지그시 누르면 파란 물이 묻어날 것 같은 가을이다. 햇살도 바람도 유난히 다정한 계절, 집에서 창밖만 보기에는 가을이 너무 아깝다. 매주 화요일, 달력 한가운데 애매하게 걸쳐 있는 평일이지만 ‘남도한바퀴’ 광주&신안여행 버스에 훌쩍 올라타면 주말보다 훨씬 짜릿한 하루가 열린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스트레스받을 필요도, 다음 목적지를 찾느라 스마트폰 지도를 뚫어져라 노려볼 일도 없다. 누군가 정성껏 짜놓은 완벽한 여행 코스에 가벼운 몸만 실으면 충분하다. 덜컹거리는 경쾌한 엔진 소리는 일상에서 로그아웃하라는 신나는 알림음으로 바뀌고, 차창 밖으로 스쳐 가는 눈부신 가을 들녘은 한 편의 청춘 로드무비처럼 반짝인다.

국제 문화 예술축제 ‘파빌리온’부터
통통한 제철 미식 ‘왕새우’ 먹방까지
시각·미각·후각 채우는 가을 낭만 산책

첫 정류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가을, 전당에서는 대만 파빌리온 ≪인스턴스 던전: 회색지대≫를 만날 수 있다. 9월5일 문을 열어 11월15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다. 광주비엔날레의 주 전시장은 별도로 있지만, 도시 곳곳의 파빌리온을 찾는 재미도 크다. 문화전당 안에서 작품을 마주하고 바깥으로 나오면 시선이 조금 달라진다. 같은 공간에 서 있어도 저마다 붙잡는 장면이 다르다. 버스여행 크루와 나누는 짧은 감상은 멀리 가는 차 안에서 뜻밖의 대화로 이어진다. 전시가 던진 질문을 당장 풀 필요는 없다. 각자 인상깊었던 이미지 하나를 마음에 담고 다시 버스에 오르면 된다.

광주에서 예술적 영감을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음은 텅 빈 위장을 남도의 맛으로 달래줄 차례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바다 내음 물씬 풍기는 신안 지도읍을 향해 내달린다. 여행에서 미식은 목적지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신안 지도읍 한복판에 자리 잡은 신안젓갈타운과 송도위판장 주변은 펄떡이는 생명력으로 왁자지껄하다. 과거부터 질 좋은 젓갈로 명성이 자자한 지도읍은 미식가들의 훌륭한 성지다. 소금과 해산물, 그리고 무한한 시간이 결합해 탄생하는 젓갈은 남도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닮아있다. 가을 바다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듯 제철 해산물이 지천으로 널려 여행자의 후각을 강렬하게 자극한다.

올 가을 지도읍을 평정한 최고의 미식은 단연 왕새우다. 신안군에서 가을 수산물로 공식 지정했을 정도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왕새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별미다. 굵은 소금을 듬뿍 깐 냄비 위에 은빛 은은한 왕새우를 가득 올리고 불을 켜면, 타닥타닥 소금 튀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새우 갑각은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으로 익어간다. 바삭하게 익은 껍질을 벗겨 한입 크게 베어 물면, 첫 맛은 소금의 짭조름함이 혀를 때리고 곧이어 새우 특유의 묵직하고 달콤한 육즙이 팡팡 터진다. 머리까지 바싹 구워 씹을 때 느껴지는 녹진한 고소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활기찬 송도위판장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를 백색소음 삼아 완벽한 한 끼를 만끽하는 순간, 여행의 행복은 혀끝에서 완성된다.

입안에 맴도는 바다 향기를 머금고 도착한 곳은, 다도해의 보석 같은 섬 증도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져 섬 아닌 섬이 됐지만, 슬로시티라는 명성에 걸맞게 증도의 시간표는 도시보다 한참 느리게 흘러간다. 차창 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첫 풍광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태평염전이다. 갯벌 위에 조성된 광활한 염판은 자연과 인간이 합작해 낸 거대한 체스판 같다. 소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필수적인 조미료지만, 정작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할 기회는 무척 드물다. 태평염전은 살아있는 거대한 박물관처럼 소금꽃이 피어나는 모든 찰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두고, 햇빛과 바람이 수분을 말려주기를 묵묵히 기다려야만 눈부시게 하얀 소금꽃을 얻을 수 있다.

나무로 짜인 소금창고들이 도열한 둑길을 천천히 걷노라면, 염부들의 고단한 땀방울이 빚어낸 신성한 노동의 무게감마저 전해진다. 곧이어 땀방울을 식혀줄 태평염전 전망대로 향한다. 높은 곳에 오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염전 전체의 장관이 두 눈을 가득 채우는데, 네모반듯하게 구획된 바닥마다 파란 가을 하늘과 하얀 구름이 맑은 거울처럼 반사된다. 땅 위에 수많은 하늘 조각이 복제된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이 시선을 압도한다.

태평염전 곁으로는 가을에 어울리는 낭만적인 산책로가 이어진다. ‘향기의 섬’이라는 참으로 근사한 별칭이 붙은 한반도 해송숲이다.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도열해 장관을 이룬다. 숲길 한가운데로 발을 들이는 순간, 조금 전까지 코끝을 맴돌던 바다 냄새는 사라지고 상쾌하고 짙은 솔향기가 온몸을 빈틈없이 감싸안는다. 솔잎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히고, 잎사귀 틈새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 조각들은 무척이나 눈부시다. 해송숲 끝자락을 통과하면, 비밀스러운 커튼을 젖힌 듯 우전해변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쏟아지고, 끝없이 이어진 은빛 모래사장과 쉼 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청명하게 여행자를 맞이한다.

버스여행의 피날레를 장식할 장소는 증도의 명물 짱뚱어다리다. 갯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470m 다리는 명칭마저 앙증맞고 정겹다. 갯벌 위로 난 다리 아래를 살피면, 짱뚱어들이 폴짝폴짝 뛰어오르고 흰발농게며 칠게들이 쉴 새 없이 진흙을 나르는 생태계의 민낯을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다. 거대한 뻘밭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숨을 쉬고 박동한다. 짱뚱어다리가 진정한 마력을 뽐내는 찰나는 바로 일몰 무렵이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마저 기우는 순간, 드넓은 갯벌은 붉은빛을 온전히 빨아들이며 핏빛으로, 또 짙은 보랏빛으로 타오른다. 압도적인 색채의 향연 앞에서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고, 노을을 등지고 다리 위를 거니는 사람들의 실루엣은 완벽한 한 장의 영화 포스터로 남는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계를 통과해 온 걸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마주한 예술의 즐거움부터 신안 지도읍 왕새우의 진득하고 풍성한 맛, 태평염전과 해송숲의 맑은 솔향기, 그리고 노을 지는 갯벌의 황홀함까지. 시각과 미각, 후각을 빈틈없이 채운 화요일의 남도 여행이 가을의 낭만을 더해준다. 가을 바람에 마음이 동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남도한바퀴 버스에 올라보자. 소금빛 찬란한 가을 바다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다정하게 품어 줄 테니까 말이다.



정지효 작가